“도영 대종사의 지혜와 자비, 영원히 피어오를 것”

금산당 도영 대종사 영결 · 다비
11월 24일 금산사 일원서 엄수
진우 스님 “포교의 등불 잇겠다”

금산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임종게

금산도영, 나고 죽음은 애초에 없더라.
나 여기 앉았거늘, 나 여기 앉아 있거늘
억만 겁 헤아릴 수 없는 세월과 아득한 미래는 흘러가는 대로 둔다 해도, 나는 여전히 여기 그대로 앉아 있네.
나고 죽는 무수한 길을 꿈결처럼 오갔고, 꿈속에서도 환인 줄을 일찍이 알았도다.
바람과 구름의 조화는 몇 번이고, 변한 것은 또 몇 번을 지냈던가.

金山道永 本無生死
我坐於此 我坐於此
億萬劫算不盡 未來際任其流 吾猶端坐於此
生死往返無量 夢中曾見如幻
風雲造化屢遷 其變幾度經乎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금산사 조실인 금산당 도영 대종사의 영결식이 11월 24일 금산사에서 엄수됐다.

한평생 포교와 전법의 길을 걸었던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금산사 조실 금산당 도영 대종사의 영결식이 11월 24일 김제 금산사에서 엄수됐다.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된 영결식에서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도영 대종사의 법체는 비록 떠났지만 남기신 가르침은 세세생생 이어질 것이며, 이별의 슬픔보다는 적멸의 기쁨을 찬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원 상월 보선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대종사의 지혜와 자비의 향연은 영원히 피어오를 것이며, 그 불꽃은 후학들의 길을 밝혀주는 샛별이 될 것”이라며 “대종사시여! 허공에 두루 하시어 법계의 중생을 제도하고 종문의 등불로 다시 나투소서”라고 애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언제나 미소 머금은 얼굴, 자애로운 음성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신 대종사께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 고락을 나눈 보리살타의 화현으로 오늘의 빈자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남기신 공덕과 원력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는 진정한 법석”이라며 “대종사께서 일생을 걸어 밝히신 포교의 등불은 이제 남은 대중의 서원이 돼 한국불교를 더 깊고 넓게 펼쳐나갈 원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일 평상 대종사는 문도추도문에서 “대종사님은 참으로 온화한 자비보살이셨다. 포교의 일선에서 불교의 지평을 넓히고 방편을 다양하게 하신 공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대종사님! 부디 적멸의 즐거움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사바세계에 나투시어 반야도량을 함께 일구는 보리행자로 저희 곁에 돌아오소서”라고 말했다.

상좌 영진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수행과 원력, 가람수호에 평생을 바치신 스님을 이제는 따뜻하고 정중하게 모셔드리고자 한다”며 “남은 것은 제자들의 몫이다. 스님의 원력에 따라 수행과 전법도생, 가람수호에 더더욱 매진하겠다. 전국 각처에서 찾아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결식 후 도영 대종사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앞세우고 오색만장과 위패, 영정 뒤로 이어진 사부대중의 긴 행렬을 따라 금산사 모악산 수목의 배웅을 받으며 연화대로 이운됐다. 연화대에 안치된 스님의 법구는 ‘스님! 불들어 갑니다’는 소리와 함께 오열하는 사부대중을 뒤로하고 붉은 불기둥과 함께 모악의 품으로 돌아갔다.

앞서 11월 20일 원적 소식이 전해진 후 분향소가 마련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에는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11월 21일 분향소를 찾아 ‘풍타기랑(風打起浪) 풍정시수(風靜是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고요하면 본래가 드러난다’는 조문 글을 남기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금산당 도영 대종사의 49재는 1·2·3·5·6재는 완주 송광사, 4재는 대전 죽림정사, 7재는 금산사 대웅보전에서 거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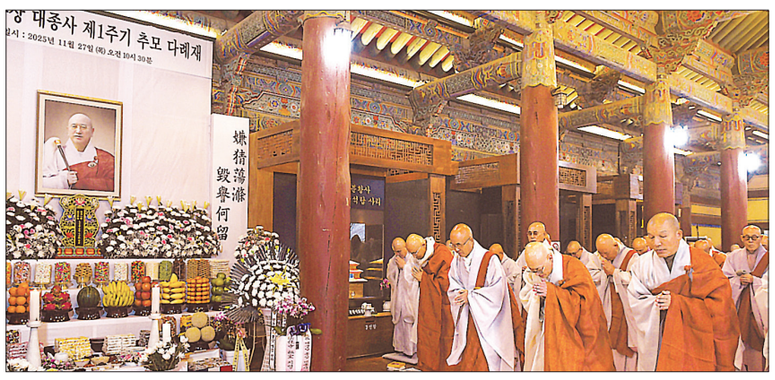
종상 대종사 1주기 “낮추고 비운 큰 어른”

11월 27일, 불국사 무설당서
종단 발전 헌신 발자취 기려

“대궁당 종상 대종사의 공덕을 찬탄하며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합니다.”

불국사(주지 종천 스님)는 11월 27일 경내 무설전에서 ‘대궁당 종상 대종사 1주기 다례재’를 봉행하며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을 기렸다.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삼천사 회주 성운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교구장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과 내빈 스님들이 참석해 종상 스님의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불국사는 11월 27일 경내 무설전에서 ‘대궁당 종상 대종사 1주기 다례재’를 봉행하며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을 기렸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종사께서는 늘 낮추고 비우며 묵묵히 불교 교단과 사부대중을 받쳐주신 참된 어른이셨다”고 회고하며 “평소 대종사께서 격려하고 후원해 주신 선명상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인연따라 흐르는 모든 존재가 마음의 안심처를 찾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이어 종상 스님의 생전 원력을 기리며 홍순지 명상음악가가 ‘금오철천비(金烏徹天飛)’를 주제로 추모가를 불렀다. ‘금오철천비’는 종상 스님의 열반송 ‘혐시탕척 훼예하류 초연탈생사 금오철천비(嫌猜蕩滌 毁譽何留 超然脫生死 金烏徹天飛)’의 의미를 담아 작사·작곡된 노래다.

문도대표 성행 스님은 “홀연히 떠나신 스님을 생각하면, 단풍이 물드는 가을빛 속에서 그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며 “바람에 흔들림 없는 도량의 기둥처럼,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궁당 종상 대종사는 평생을 수행·교화·종단 발전에 헌신하며 불국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 행정과 포교, 문화·복지 사업을 이끌어 온 대덕이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추진위원장으로 남북 불교교류에 앞장섰고, 동국대 이사, 불국사복지재단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행적을 남겼다.

경주=하성미 기자, 사진=김선행 대구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자비의 쌀 전달

서구청에 쌀 2000kg 기부…16년째 지원 이어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스님)은 11월 24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해 쌀 2000kg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사진〉

서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광주지원 신도회 최성휴 고문, 문원진 회장, 최광숙 여신도부회장, 전재성 부회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이 참석했다.

문원진 신도회장은 “풍요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오늘 나눔이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이강 청장은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히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서구 관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1996년부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과 자비의 쌀 전달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제1회 단기출가학교 성료

11월 21~30일, 11명 입교
“깨달음 문에 들겠다” 발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주관한 ‘선운사 제1기 단기출학가교 쉼, 그리고 시작’이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30일 회향했다.〈사진〉

선운사 단기출가학교는 11월 21일 입재식에 남자 6명, 여자 5명 총 11명이 입교했다. 부모님 동의하에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참가한 15세 학생부터 66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동참했다.

고불식에서 주지 경우 스님은 “단기출가학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수행의 길”이라며 “오늘의 첫 발걸음이 여러분 삶의 길 위에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출가란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 흔들림 없이 서겠다는 서원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표로 삼아 삶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삼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가는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원력으로 종단은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 언제나 따뜻한 인연이 되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최고령자인 오동섭 불자가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부처님법을 만나 마음을 돌이키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 수행의 길로 나아가고자 발심했다”며 “이 발심이 더욱 굳어지고 수행의 인연이 무르익어 깨달음의 문에 들게 하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포교사로 실제 출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지흥 불자는 “단기출가기간 동안 집착을 끊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가족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출가학교 기간 동안 새벽예불로 하루를 시작해 사찰예절, 발우공양, 선명상, 예불습의 등을 익히고 부처님의 생애와 〈초발심자경문〉 등을 배우며 수행자의 생활을 체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국비구니회, 장병 위한 ‘특별 음악법회’

11월 23일 호국관음사서
음악 · 사찰음식 체험 등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1월 23일 호국관음사(주지 균재 스님)에서 31사단 신병교육대 장병 200여 명을 초청해 음악과 사찰음식, 레크레이션이 결합된 ‘특별 음악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전국비구니회가 추진하는 ‘전국 비구니 군승 법회 지원 및 미래불자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균재 스님은 인사말에서 “더 재미있고 활기찬 포교 활동으로 군 생활에 힘이 되는 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음악법회에서는 앙상블 ‘블루 로터스’가 찬불가부터 K-팝, 클래식까지 다양한 곡을 연주해 장병들을 사로잡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총화종, 총본산서 종단 혁신 로드맵 논의

11월 25일, 이사회 등 개최

(사)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11월 25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에서 종단 혁신로드맵 마련을 위해 법인 2차 임시 이사회, 95차 중앙종회, 제1회 비구니회 임시총회를 잇달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총본산 불사의 주요 경과가 보고됐고, 이사들은 종단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종단은 오늘 결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승가 구성원의 역할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불교낙화의례 기원·전개 고찰 학술대회

11월 21일, 세종청사서

불교의례문화연구소와 불교무형문화연구소는 11월 21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불교 낙화법의 기원과 전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낙화법보존회 이사장 환성 스님은 대회사에서 “낙화법은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자기 정화와 수행 정신을 담은 불교 의례”라며 “낙화법의 역사적 뿌리와 의례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가 낙화 의례의 구조와 역사, 신앙적 기반을 정리하는 자리”라며 “낙화법이 세종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인사를 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도선언 새기자” 경남포교사단 결집대회

11월 22일, 표창 · 감사장 수여

조계종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이원환)이 11월 22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포교전진대회’를 열고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사진〉

이원환 경남지역단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행사는 한 해 동안 불법 홍포를 위해 힘쓴 포교사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선명상 생활화와 전문포교사 양성 등 종단 정책에 발맞춘 노력을 소개하며 “2026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중부총괄팀 김수연 포교사가 전법상, 불교문화해설 심우팀이 우수상, 중부불교문화풍경팀 및 김종석 포교사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동부지역 광명팀과 동부교정교화팀 포교사들에게도 표창장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